

# 4·3 다크투어리즘



4·3평화공원에는 타 지방 형무소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이들을 추모하는 묘역이 설치됐다.

**제주4·3사건이란**

1945년 광복을 맞아 일본에서 귀환한 제주주민은 6만명에 이르면서 실직난과 생필품이 부족해 졌다. 여기에 콜레라 창궐, 대흉년, 양곡정책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미군정이 통치하면서 일제 경찰은 군정 경찰로 변신했고, 군정 관리의 부정부패는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1947년 3·1절 기념식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하면서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우월 진압에 반발해 그해 3월 10일 공무원과 교사, 학생, 회사원 등 민간 사업장 95%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일어났다. 미군정은 총파업을 벌인 2500여 명을 구금했고, 이 중 3명이 고문으로 사망, 도민들은 더욱 반발하게 됐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여 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지서를 공격했다. 유혈 사태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풀릴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돼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 역사를 기억하는 여행... 평화와 인권을 다시 일깨우다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의 4월. 72년 전 봄에도 꽃은 피었지만 도민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까지 6년 6개월 동안 전개됐다. 섬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전체 인구의 약 30만명 중 10%인 3만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다. 또 중산간마을 95%가 소실됐다. 4·3의 비극과 아픔은 600여 곳의 유적으로 남아있다.

유적을 방문하는 4·3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은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 제주

민간학살 추념 '제주4·3평화공원' 교육의 장 '너븐승이 4·3기념관' 암매장터로 이용했던 일제 탄약고 성산리 '터진목' 입구에 위령비 등 6년 6개월간의 비극 유적으로 남아

경 토벌대가 피운 연기에 질식사한 비극의 현장을 보여준다.

◇446명의 넋을 기리는 너븐승이 4·3기념관  
1949년 1월 17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한 날한시에 남녀노소 446명이 희생됐다. 북촌리 마을은 4·3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이날 오전 군병력 일부가 북촌리를 지나던 중 무장대의 습격으로 군인 2명이 숨졌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들은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내몰고 마을을 불태웠다.

주민들은 주민들을 '빨갱이 가족'이라며 한꺼번에 수십 명씩 끌고 나간 후 기관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했다. 한 어머니는 아기를 안은 채 숨졌지만, 배고픔에 울던 아기는 죽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젖을 빼는 비극적인 목격담이 나왔다.

집단 학살을 당한 북촌마을은 후손이 끊기면서 한 때 무남촌(無男村)으로 불렸다.

2009년 제주도는 2532㎡ 부지에 북촌 너븐승이 4·3기념관(294㎡)과 위령성지를 건립했다.

기념관에는 강요배 화백의 4·3그림 '젓먹이', 북촌리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초판본과 일어판·영어판 소설이 전시됐다.

당시 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다. 너븐승이에 있는 돌무덤은 '애기무덤'이라 불린다. '너븐승이'는 넓은 돌밭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일제가 남긴 지하 탄약고...양민 학살터로 사용  
태평양전쟁(1941~1945년)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알뜨르비행장을 확장, 조성했다. 전투기 격납고 19개는 지금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전쟁 막바지에는 비행장을 요새화하기 위해 석알오름 동굴진지와 고사포진지가 구축됐다.

당시 일본군은 야트막한 석알오름의 내부를 전부 파내 탄약고로 사용했다. 이 지하 탄약고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에 의해 폭파됐다. 이 때 오름의 절반이 함몰돼 큰 구덩이가 생겼다. 이 구덩이는 4·3 이후 예비검속 당시 주민을 학살, 암매장한 장소로 이용됐다.

당국은 1956년 5월 모슬포지역 희생자 132명의 유해를 수습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자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유족들은 흩어질 뻔할 추슬러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조상은 100명이 넘되 자손은 하나'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지토(百祖一孫之地)'라고 새겼다.

6·25전쟁이 한창일 때 제주는 4·3사건이 진행 중이었지만, 1951년 1월 대정읍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됐다. 1956년 문을 닫을 때까지 5년 간 장병 50만명을 배출했다.

◇성산일출봉 푸른 바다가 붉은 피로 물들어  
서귀포시 성산읍은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가 주둔, 마을 곳곳에 죽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청 특별중대는 성산초등학교를 점수해 1년간 주둔했다. 이들은 군복만 입었을 뿐 명찰과 계급장이 없었다. 학교 건물에서 숙식하던 이들은 학교 옆 감자창고에 주민들을 붙잡아 온 후 매일 고문을 자행하면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젊은 여성에게는 목을 짓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주민들을 고문한 후 대부분 총살했다. 학살 장소는 성산리의 '터진목'과 성산일출봉 입구에 있는 '우뚝개동산'이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이곳에서 집단 학살된 희생자는 467명에 이른다. 푸른 바다는 매일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성산읍 4·3유적회는 2010년 터진목 입구에 위령비와 함께 467명의 희생자 이름을 새겨놓았다.

백가운 제주다크투어 대표는 "제주지역 4·3유적은 600곳이 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잊혀져 가고 있다"며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제주에선 4·3사건이 진행됐는데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4·3과 전쟁 유적을 함께 돌아보는 4·3기행을 추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신보 좌동철 기자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와 행방불명인을 기리기 위해 2008년 3월 문을 연 제주4·3평화공원 전경.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터진목' 해안에서는 467명의 양민이 학살됐다.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 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